

##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분**단 60여년이 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모든 분야가 그러했듯이 통일의 경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통일의 주체, 대상, 환경, 인식에 있어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통**일의 주체와 관련하여 분단이후 태어난 국민이 90%가 되며, 이들은 분단이전 상태를 책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이들에게 북한은 가본 적도 없고, 북한주민을 만난 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지 못한 시간적으로 보면 후퇴한, 실패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반세기 이상 남한에 대해 위협적이며 이제 핵무기까지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잔인성을 재인식하게 하여 통일의 열망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남과 북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은 통일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 통일 20주년은 한국인들에게 통일이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지만 분단보다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 '세습·핵·빈곤·폐쇄'를 고수하는 한 체제유지가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현실이다.

**통**일과 관련한 제반 여건의 변화는 지금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의 통일 필요성의 논리인 "단일민족의 재결합",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남북협력론", 또는 "통일지상주의"로는 다가갈 수 없다.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들에게 위의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민족 수준에서 구성되어진 통일필요성 논리보다는 개인적, 국제적 수준에서 통일에 대한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계산에 의한 접근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경우, 당위적 차원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호소에서 벗어나 실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 줄 실질적 이익을 강조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설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목 차

1.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개발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2.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3. 통일 필요성 논리와  
개발 방향
  - 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
  - 나. 왜 통일 필요성  
'논리' 인가
  - 다.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구성 방향
4. 통일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논리
  - 가. 분단비용보다 저렴한  
통일비용
  - 나. 정치 외교적 의의
  - 다. 경제적 편익
  - 라. 안보적 이득
  - 마. 사회문화적 통합
5. 결론에 대신하여

## 1.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개발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 분단 65년은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통일과 관련되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통일과 관련하여 주제, 대상, 환경, 인식의 내용이 모두 바뀌었음.
- 통일의 주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분단이후 태어난 국민이 90%가 되며 이들은 분단이전 상태를 책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땅의 일부인 북한에 가본 적도 없고, 북한주민을 만난 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사회,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북한주민이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사라져가고 심지어는 일부 어린이들은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일본이나 미국 대학생들과는 같은 노래, 같은 책, 같은 게임을 하면서 생소하고 적대감을 갖는 북한의 대학생보다도 더 동질감을 느끼는 현실임(이상우 2010).
- 따라서 통일인식과 관련하여 이들은 통일을 꼭 해야 하나 라는 물음에 “해야 한다”라고 대답하나, 심도 있는 조사에 의하면 80%이상 “무리하지 말고 분단 이 상태로 그냥 지내자”라는 인식 또는 ‘통일연기론’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국제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남과 북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은 통일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려 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 통일 20주년은 분단시대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통일이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지만 분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실패국가로 전락하였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지 못한, 시간적으로 보면 후퇴한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반세기 이상 남한에 대해 위협적이었으며 이제 핵무기까지 앞세우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경제난과 김정일의 건강 이상에 따라 3남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봉건시대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정권은 남한을 향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주민에 대하여 폭격을 하여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잔인성을 재인식

하게 하여 안보의 중요성에 눈을 뜨면서 통일의 열망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세습·핵·빈곤·폐쇄’를 고수하는 한 체제유지가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현실임(박명림 2011).

- 따라서 지금까지의 통일필요성의 논리로 제기되어온 ‘단일민족의 재결합(단일민족, 단일국가론)’, ‘이산가족의 재결합’, ‘남북협력론(남북상호보완주의)’, ‘통일지상주의’로는 지금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들에게 위의 논리로 설득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들에게 국가 또는 민족 수준에서 구성되어진 통일필요성 논리보다는 개인적·국제적 수준에서 통일에 대한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계산에 의한 접근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이제 ‘왜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달라진 통일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이 문제는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경우, 지금까지 내세워진 당위적 차원의 통일 필요성 강조와 ‘이산가족의 고통호소(또는 북한주민의 삶 개선)’와 같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호소하는 정서적 논리 중심에서 벗어나 실리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 줄 실질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젊은 세대들의 설득의 주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함.
  - 실질적인 통일 이득이 무엇인지, 통일이 되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등과 같은 쉽게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객관적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산출, 체감할 수 있는 개개인의 통일 수혜 내용 제시 등을 통해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과 논리가 필요함.

*지금까지의 통일필요성의 논리로 제기되어온 ‘단일민족의 재결합(단일민족, 단일국가론)’, ‘이산가족의 재결합’, ‘남북협력론(남북상호보완주의)’, ‘통일지상주의’로는 지금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 2.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 최근 들어 북한의 심상치 않은 상황은 남북관계 및 통일 패러다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통일이 장기적·단계적·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고,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선행을  
강조... 이 시각은 어떻게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분단관리’ 통일  
패러다임**

과거 ‘분단관리’ 중심에서 ‘통일대비’로 전환케 하고 있음.

- 통일교육은 변화하는 통일환경과 교육환경에 알맞게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임.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통일이 장기적·단계적·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고,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선행을 강조함.
  - 이 시각은 어떻게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분단관리’ 통일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 ‘분단관리’ 패러다임 하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하위에 있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음.
  - 대북 포용의 정책 기조 하에서 통일문제는 가급적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 놓고 경제·사회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양적 확대를 남북관계 발전의 지표로 간주했음.
  -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통일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은 실종될 수밖에 없었음.
- ‘분단관리’ 패러다임 하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도 모두 바뀌었음.
  - 북한체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평화공존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체제 차이를 그대로 둔 채 현존 두 국가를 아우르는 상위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연방제 통일을 해설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이 체계화되었음.
  -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체계화된 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의 대북 경제심은 약화되고 반인도적 주민 탄압도 묵인하는 대북인식을 가진 국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제65주년 8·15경축사를 통해 ‘3대 공동체 통일구상(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을 공표하면서 기존의 현상유지의 ‘분단관리’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했음.
  - 통일대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세 측면에서 구체적인 통일정책의 방향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 첫째,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임.

-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했음.
  - 이는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분단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최진욱 2010.1).
- 둘째, 통일을 대비한 현실적 방안 준비의 필요성임.
- 통일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통일 준비 여하가 통일의 방향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한 인적·물적·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통일부 2010.1).
- 셋째,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임.
- 이는 국민적 수준에서의 통일담론의 활성화, 나아가 통일문제의 공론화를 의미하며, 현 시점을 통일미래 및 이의 준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민족공동체로의 통일과정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빠를수록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취지임.
- 통일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를 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통일 필요성과 그 논리를 새롭게 가다듬는 일임.
- 특히 현 시기가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점에서 통일 필요성 논리 역시 새로운 논리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왜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경축사를**  
**통해 ‘3대 공동체 통일**  
**구상(평화공동체, 경제**  
**공동체, 민족공동체)’을**  
**공표하면서 기존의 현상**  
**유지의 ‘분단관리’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

### 3. 통일 필요성 논리와 개발 방향

#### 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

-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 선진화와 통일
  - 21세기 대한민국은 20세기에 달성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박세일 2011).

**통일 한국은 분단  
한국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상쇄 또는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  
남북한이 가진 역량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고려하면 통일 이후  
선진화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져**

- 21세기 한국에게 통일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통일 없이 선진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일 것임.
  - 세계의 선진국들의 국토 및 인구 규모, 사회적·정치적 통합, 경제적 역량 등을 보면 분단 한국이 선진화를 이루기는 버거운 과제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임.
  - 그러나 통일 한국은 분단 한국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상쇄 또는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남북한이 가진 역량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고려하면 통일 이후 선진화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짐.
  - 따라서 통일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근본 조건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은 통일 한국에서 찾아야 할 것임.
- 분단 폐해의 인식
    - 일상화된 분단구조에 함몰된 나머지 분단 자체를 당연시하고 그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인식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
    - 남북 분단이 초래한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그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분단에 대한 열망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될 것임.
    - 정부수립 이래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의 막대한 천문학적 비용을 분단을 관리하는 데 쏟아 부어 왔으며,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비용을 떠안고 살아야 함.
  -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분단비용
    - 분단비용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함.
    - 분단으로 인한 사회·정치적 갈등은 한국 사회와 정치를 두 동강 내기도 하고,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결은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도발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함.
    - 이러한 분단비용들은 경제적으로 산출될 수 없는 분단비용들이며,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환산하기 어려운 비용들이 끊임없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함.
  - 북한의 군사적 도발 해소
    - 통일이 엄중한 과제로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1999년 제1연평

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은 그동안 불안하게 유지되어 오던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중한 국가적·국민적 문제인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음.
-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들을 통해서 볼 때,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희생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북한의 대남도발에 전전긍긍하면서 한반도 위기조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분단체제는 항상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통일의 길은 대안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북한의 실패한 비정상적 국가체제의 정상화와 북한 주민의 빈곤과 기아로부터의 해방

- 실패한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 수령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체제를 용인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희생을 눈 감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선량한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실패한 비정상적 국가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주도로 통일을 이룩해야 함.

나. 왜 통일 필요성 ‘논리’인가

- 통일 필요성은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이자 추동력임.
  - 절실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없이 통일의 달성은 어렵고 통일정책 추진도 형식적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 역량을 꾸준히 함양하는 가운데 통일정책이 추진될 때, 통일은 단순한 이상이나 레토릭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통일교육이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립·증진시키지 못한다면, 이러한 통일교육의 주안점들은 교육적 가치로서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될 것임.

- 따라서 통일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첫 번째 주안점은 무엇보다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인지 확립(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이며, 통일필요성 논리가 통일교육의 출발점이라

*정부수립 이래 헤아리기  
조차 어려울 만큼의  
막대한 천문학적 비용을  
분단을 관리하는 데  
쏟아 부어 왔으며,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비용을  
떠안고 살아가야...  
분단비용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

**통일 필요성의 논리는 기존의 국가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국가적·국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논리를 구성해야... 즉, 개인적 수준, 남북한 국가 차원, 동북아 지역 차원, 국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고 할 수 있음.

-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통일은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며,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란 말은 단순한 노랫말일 뿐 현실적 절박함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고, 그저 통일은 먼 미래 언젠가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조동호 2010).
-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날이 갈수록 약화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약화는 더욱 우려해야 하는 수준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의 약화는 이제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다.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구성 방향

- 통일 필요성의 논리는 기존의 국가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국가적·국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논리를 구성해야 할 것임. 즉 개인적 수준, 남북한 국가 차원, 동북아 지역 차원, 국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 이러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 구성의 방향은 기존 논리의 유용성은 살리고 한계는 보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엄상윤 2010.4).
- 다시 말하면, 기존의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되었던 당위적·인도적 측면의 논리적 근거들을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근거로 대두하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실리적 측면을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여기에 덧붙여, 통일 논리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할 것임.
- 통일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인식 없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이득이 된다는 논리로는 국민적 공감을 끌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통일 의지와 통일을 위한 참여까지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 있음.
- 통일은 곧 ‘나의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리고 통일편익이 개인적 편익으로 쉽게 환원될 수 있을 때 통일 관련 참여의지가 확산될 것임.

- 실리적 차원의 논리는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논리로 구성되어야 함.
  - 그동안 통일이 가져다 줄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 왔음.
  - 개인에게 실리적 차원에서 통일 필요성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 경제적 효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다양한 경제적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음.
  
- 통일의 실리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통해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때문에 통일은 나와 국가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 이익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 물론 통일에 따르는 단기적 부담과 장기적 이익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함.
  - 다시 말하면, 통일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비용과 고통이 단순히 북한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용과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도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 그에 따라 분단의 구조적 제약 해소가 일차적으로는 나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통일비용과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함.
  - 청소년들은 장차 통일을 주도하고 그 비용과 고통을 부담해야 할 세대임.
  - 최근 통일비용 문제가 통일정책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혹은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크게 제고시켜 주어야 함.

*개인에게 실리적 차원에서 통일 필요성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 경제적 효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다양한 경제적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통일국가  
건설에서 당연히  
경제적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등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미래 통일 한국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생산비용' ...  
통일비용은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과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을  
구출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비용'

## 4. 통일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논리

### 가. 분단비용보다 저렴한 통일비용

#### 1) 통일비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 새로운 통일국가 건설에서 당연히 경제적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등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미래 통일 한국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생산비용'임.
- 통일비용은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과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을 구출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비용'임.
- 회생불능의 북한을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밖에 없으며,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 소요되는 통일비용은 무너진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 '재건비용'임.
- 통일 이후 남북한은 각각이 보유한 자원의 연계 및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통일비용은 북한의 생산시설을 재건하고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 '투자비용'임.

#### 2)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총체적 이해

- 통일은 비용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편익도 발생시키며,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크며, 경제적 편익만이 아니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비경제적 편익들을 창출함.
-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분단비용 해소, 남북 경제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등과 같은 편익을 가져옴.
  - 비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전쟁 위협의 해소 등과 같은 편익을 창출함.

#### 3) 통일비용보다 큰 분단비용

- 통일로 분단이 해소되기 때문에 분단비용 해소라는 천문학적 통일편익을 발생시키며,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큼.
  - 분단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인 반면, 통일비용은 남북한 통일 이후 단기간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통일을 주도하고 그 비용과 고통을 크게 부담해야 할 국민들에게 통일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혹은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분단의 구조적 제약 해소는 일차적으로는 나 자신의 이익과 크게 부합·직결되기 때문에 통일비용과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엄상윤 2010)하다는 인식이 필요함.

#### 4) 통일비용 완화를 위한 통일대비의 중요성

- 기존의 통일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통일 독일의 통일비용 산출 방식과 사례를 남북한 통일에 기계적으로 단순 적용한 데 따른 결과임.
- 통일비용은 통일방식과 통합 수준 및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독일의 통일비용 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문제임.
- 독일은 통일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여 초기에는 통일비용과 사회통합 문제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음.
- 통일 한국 이후 불필요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중요함.

#### 나. 정치 외교적 의의

-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공존은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적지 않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 불필요한 외교적 경쟁,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는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변수임.
- 국민들이 쉽게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통일의 정치 외교적 효과임.

#### 1) 통일 한국, 제2의 국가 건설

-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은 반세기 동안 7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경제규모에서 세계 12위를

**통일은 비용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편익도 발생시키며,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크며, 경제적 편익만이 아니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비경제적 편익들을 창출**

## 기존의 통일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 통일 독일의 통일비용 산출 방식과 사례를

### 남북한 통일에 기계적 으로 단순 적용한데

### 따른 결과...

### 통일비용은 통일방식과 통합 수준 및 방식

### 등에 따라 다르게

### 산출 될 수 있기 때문에

### 통일 독일의 통일비용 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문제

차지하는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8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국제질서에 종속되었던 약소국에서 국제질서의 관리국 G-20의 주도국의 하나로 약진하고 있음(통일교육위원회 의회 2010, 58).

- 통일은 우리의 기존 성장엔진에 또 다른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음.
- 제2의 국가건설로 이룩한 통일 한국은 통일 위업을 달성한 새로운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임.
  - 상상만 해 오던 통일 한국의 건설은 남북한 주민의 기대와 열망, 비전을 하나로 모은 진정한 민족공동체로 거듭나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하게 될 것임.
  - 이처럼 통일은 분단국의 통합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제2의 국가건설로서, 새로운 통일국가의 탄생이라는 의미 부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2) 베세토(BESETO) 벨트의 중심국가

- 베세토(BESETO) 벨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의 두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HUB(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음.
  - 중국, 일본을 연결할 수 있는 물류기지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나아가 유럽과 북미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로의 개발로 그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최근에 눈부신 성장을 하는 중국과 경제 강국 일본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함.
  - 그러나 샌드위치는 빵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우리나라)이 우수할 때 더욱 맛이 있음.
  - 그것은 바로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통일 한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됨을 의미.

## 3) 북한 빈곤과 인권 개선을 통한 북한동포의 포용

-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인권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정치범에 대한 무자비한 처분은 전근대적 국가폭력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이 처한 빈곤 문제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이라는 점에서 보면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인권의 한 범주에 포함됨.
- 북한의 빈곤과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통일임.
- 통일은 정치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통일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빈곤과 인권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통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얻게 됨.
  - 기아에 허덕이다 아사에 이르는 가여운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길이 바로 통일임.
  - 우리 청소년들은 인권을 보장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북한의 청소년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게 될 것임.

#### 4) 국제무대에서 활동 기회의 확대

-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은 UN 동시 가입을 계기로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 그에 따라 남북한의 외교 관계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국제무대 활동의 기회를 제약 받고 있음. 또한 북한이 테러지원 국가로 인식되면서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도 이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통일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중적 인식을 일소하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임.
- 독일은 통일 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당당하게 군대를 파견하고, 유럽 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통일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과 우호에 앞장섬으로써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임. 통일 한국은 비핵국가를 지향하고 국제사회의 다문화 중심지로서 타인종과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국가가 될 것임.

*통일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중적 인식을 일소하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  
통일한국은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과 우호에 앞장섬으로써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

#### 5) 한·일 및 한·중 민족주의 갈등에 보다 총체적으로 대응

-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어울리지 않지만, 동북아 현실에서 한·중·

**통일은 우리의 활동  
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넓히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어...**  
**통일을 이룬다면 우리  
민족은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으로  
이여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어**

일 3국의 민족주의는 여전히 꺾일 줄 모르는 기세를 보이고 있음.

-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시기하는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의 한류스타 비하하는 비일비재한 현상임.
-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동북아의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민족주의 적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임.

-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의 역사 갈등의 경우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나 유물, 유적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과거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불온한 계획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과의 역사 및 독도 분쟁의 경우에도 한층 힘을 얻게 될 것임.

- 통일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민족주의적 충돌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큰 힘을 얻게 될 것임.

**다. 경제적 편익**

- 통일 필요성 논리에서 가장 강조되는 편익이 경제적 편익임.
  - 이는 아마도 통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편익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임.
  -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가시적 편익뿐만 아니라 잠재적 편익까지 포함하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임.

**1)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국토**

-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반도국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임.
  - 북쪽으로는 대륙(시베리아, 러시아, 유럽까지), 남쪽으로는 태평양을 누빌 수 있는 곳에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음.
- 통일은 우리의 활동 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넓히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함.
  -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분단으로 인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로가 막혀 있는 상황임.
  - 그러므로 통일을 이룬다면 우리 민족은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으로 이여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음.

## 2) 국민 개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통일 한국의 전체 GDP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1인당 GDP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
  - 통일세대가 될 현재의 청소년들은 통일로 개인소득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선진국에서처럼 평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음.
  - 현재의 다른 선진국들 못지않게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임.
- 한국이 분단 이후에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는 못한 상황임.
  - 중진국의 문턱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는 바로 통일이 지렛대임.
  - 통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경제적 잠재력을 상승시켜 이를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인 통일 한국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과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임.

## 3) 취업 기회의 확대

- 통일은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아직 미개발 지역인 북한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력 수요가 있을 것임.
  - 그리고 통일로 대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외국 취업 기회도 훨씬 넓게 열리게 될 것임.
  - 한국어와 한글 사용지역의 광역화되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 지역이 확대됨.
- 통일 이후 북한을 남한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 시설이 필요함.
  -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 외에도 공단 조성,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과 그에 따른 시설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남한의 작업 시스템에 적응된 인력이 더욱 필요함.
  - 결국 통일은 남한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통일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취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임.

**통일은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돼... 아직 미개발 지역인 북한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력 수요가 있을 것... 통일로 대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외국 취업 기회도 훨씬 넓게 열리게 돼**

통일은 불안한 국가  
이미지를 없앴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가신용  
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  
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떠오를 것

#### 4)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문제의 해소

-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피해 및 과잉생산에 따른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음.
  - 농산물이 과잉 생산됨으로써 가격 폭락이나 폐기처분으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
  -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라는 새로운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비교적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걱정거리를 덜게 될 것임.
  - 통일은 이처럼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인해 농촌과 도시 지역 청소년 부모들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5)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한국 경제의 위상 변화

- 남북 분단 상황에서 호전적 북한정권의 존재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분단 현실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변수임.
- 군사적 대결과 충돌이 빈번한 분단국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매력 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통일은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며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통일은 불안한 국가 이미지를 없앴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가신용 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떠오를 것임.
-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은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를 증가시켜 한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 것임.
  - 또한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도 제값을 받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제품을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효과는 국가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이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도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라. 안보적 이득**

- 안보적 측면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군사적 위협과 테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
  - 직접적인 남북한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리한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를 위협하는 도발로 간주되고 있음.
  - 통일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남테러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군사적 충돌과 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은 바로 통일을 통해서 이를 수 있음.

**1) 의무병제 폐지**

- 현행 군인 충원제도는 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대에 입대를 하도록 하는 의무병제도임.
  - 그러나 의무병제가 폐지되면,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고, 군대에서 2년여 동안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은 학업에 충실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인력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통일로 인한 군사편제의 개편은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임.
  - 사실,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 국민들이 안락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함.
  - 그러나 통일은 그 자체로서 안락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만큼 새로운 사회발전의 동력이 증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2) 전쟁 공포의 근원적 해소**

- 북한은 분단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일삼아 왔음.
  -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우리 해군 병사 46명이 사망했으며, 구조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음.
  -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음.
- 북한의 무력도발은 냉전과 탈냉전 구분 없이, 남북관계 호전과 경색

*안보적 측면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군사적  
위협과 테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  
통일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남테러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군사적 충돌과 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은  
바로 통일을 통해서  
이를 수 있어*

**통일로 국방예산이  
절감 될 경우,  
학교교육의 질을 더욱  
높임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열패자들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전체적으로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일순간 전쟁공포에 휩싸였던 수차례의 경험을 갖고 있음.

- 남북한 간 전면전은 승패 여부를 떠나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을 것임.
- 통일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안보 대상이 북한에서 다른 외부의 적으로 전환될 것이고,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임.
-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안보적 이익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

### 3) 국방예산 절감에 따른 교육·복지예산 확대

- 세계화된 경쟁으로 인해 갈수록 삶이 각박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세계화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경쟁에서 낙오한 열패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숙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통일로 국방예산이 절감될 경우, 학교 교육의 질을 더욱 높임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사회적 열패자들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전체적으로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됨.

### 마. 사회문화적 통합

-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통합 부문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사회문화적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념과 체제는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동서독 주민들 간의 ‘내적통합’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 독일 통일 이후 통일의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됨.
  - 그럼에도 통일은 점점 더 이질화의 정도가 심화되는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동질화시키고, 또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양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1) 남북한 학문 융합을 통한 선진 학문역량의 구축과 인적 자산 보유**

- 16세까지 무상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은 점이 경쟁력으로, 이는 통일 후 한국의 강점으로 작용함.
  - 남북한의 교육은 통일 후 적절히 조정된다면 높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예컨대, 과학 분야의 경우 북한은 응용과학에 비해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해왔고, 우리의 경우는 응용과학이 기초과학에 비해 더 인기 있는 학문분야임.
  - 따라서 통일은 한국 과학교육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병행발전을 통해 균형을 이룸으로써 과학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임.
- 통일 후 우리의 역사의식과 그에 대한 관심은 한층 배가될 것임.
  - 간도, 만주, 발해 및 고구려 역사 등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알게 하는 기회로 작용함.
  - 한국 청소년이 그동안 방문할 수 없었던 북한 지역의 고구려와 고려 유적지를 통일 이후에는 교육 현장화하여 상시 방문할 수 있음.
- 또한 동서 냉전의 시대는 종결되었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선진 학문을 배우는 창구로 서로 다른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리의 경우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반면, 북한은 러시아, 중국, 동유럽 등에서 공부한 고급인력들이 있음.
  - 이러한 남북한 각각의 선진학문 학습의 창구가 통일이 되면 다변화 되어 훨씬 수준 높은 학문을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됨.

**2) 남북한과 해외동포가 결합된 ‘글로벌 통일 한국’ 완성**

- 우리가 통일을 논의할 때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 식민 통치와 분단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땅을 등져야 했던 같은 민족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못함.
  - 통일 한국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아닌 민족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필요로 함.
  - 여기에는 반드시 해외동포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 및 해외동포가 하나 되는 진정한 ‘글로벌 통일 한국’을 완성하는 일임.

*통일 한국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아닌 민족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필요로 해...  
여기에는 반드시 해외 동포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 및 해외동포가 하나 되는 진정한 ‘글로벌 통일 한국’을 완성하는 길*

**통일은 한민족이  
세계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할 것... 이 역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CEO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

- 통일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세계적으로 응집력 있는 민족이 세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음. 유태인, 인도인, 화교 등이 표적인 사례임.
  - 따라서 통일은 한민족이 세계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할 것임.
  - 이 역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CEO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임.

### 3) 스포츠 강국 통일 한국

- 분단 상황에서는 남북한이 각각의 국가로 출전하여 세계와 경쟁하지만, 통일이 되었을 경우 경기력과 경쟁력이 높아져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음.
  - 그동안 세계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출전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통일 후 한국 스포츠는 세계 스포츠 강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임.
- 한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여 종합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음. 그러나 남북이 통일되었다면 6위인 호주를 제치고 독일을 바짝 따라붙는 6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임.
  - 국가 단위로 경쟁하는 월드컵 축구에서도 현재보다 우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음. 한국은 2002년 FIFA 월드컵에서 경이적인 성적인 세계 4강을 달성했지만,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17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15위를 기록(북한은 32위). 통일이 되었다면, 한국의 2002년 월드컵 4강의 성적은 항상 도전 가능하고 또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음.
- 우리는 하계 올림픽(88 서울올림픽)과 여름철에 치러지는 월드컵 축구(2002)는 치렀지만 동계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동계스포츠 대회를 유치한 경험은 거의 없음.
  - 통일 후 동계스포츠를 활성화하여 한국이 동북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음.
  - 특히 북한 지역의 기후를 적극 활용하여 스키, 스케이트 등 다양한

동계 스포츠를 청소년의 생활운동으로 활성화 할 수도 있음.

#### 4) 해외여행의 새로운 경로 개발

- 해외여행은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함.
  - 그러나 통일이 되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북한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 지역 및 유럽으로까지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임.
  - 광대한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나 지평선이 보이는 광활한 대륙에서의 자동차 여행은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여행코스임.
  - 또 유럽으로의 여행이 막대한 항공료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육상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럽여행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질 것임.
  
- 해외여행은 청소년들의 세계를 보는 시야를 확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육로를 이용한 해외여행의 새로운 경로는 세계를 보는 청소년들의 시야확장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와 안목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임.

#### 5) 남남갈등과 이념갈등의 근원적 해소

-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는 서서히 이념갈등의 또 다른 명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남남갈등이 새로운 갈등의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이념갈등은 겉으로 표출될 수 없는 일종의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 좌우,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갈등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
  - 여기에 대북 및 통일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 즉 남남갈등이 새로운 갈등의 축으로 부상했음.
  
- 통일은 남남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념갈등을 보다 건전한 차원에서 재정 의하게 할 것임.
  - 통일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용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그것은 새의 양 날개처럼 상호 보완적으로 한국 사회와 정치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건설적인 이념논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
  - 더 나아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념과 정파에 기반한 극단적 상호비방 대신 정치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론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임.

**통일은 남남갈등을  
해소 할 뿐만 아니라  
이념갈등을 보다 건전한  
차원에서 재정 의하게  
할 것...**  
**통일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용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은 기존의  
논리 체계나 내용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합리적 비판을 통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구축하는 방향으로  
더욱 진전되어야**

## 5. 결론에 대신하여

-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출발점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는데 있음.
  -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약화된 통일의식을 끌어올리고 통일에의 의지와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절실함.
  - 그러나 그동안 제시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들은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발굴도 미진했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관념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은 기존의 논리 체계나 내용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합리적 비판을 통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구축하는 방향으로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통일 필요성의 논리는 기존의 국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을 망라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지향해야 함. 즉 개인적 수준, 남북한 차원, 동북아 지역 차원, 국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 다만, 통일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도 아니며 실용적 차원의 이익이나 편익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통일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 있고 국민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해야 함.
  - 당위적 차원이나 인도적 차원의 논리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논리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명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문제의 복잡성과 중층성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함.
  - 요컨대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적 수준에서 긍정적 결과를 수반한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함.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석범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 저자 약력

---

### ■ 고성준

現 제주대학교 사범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임.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교환교수,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 제주대학교 통일안보연구소장을 역임했음. 연구 분야는 북한정치, 동아시아정치이며, 주요 저서로는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치, 통일”의 다수가 있음.

## 주석

---

\* 이 글은 고성준·변종현·고경민·양영길·김병성, 『청소년 대상 통일 필요성 논리 개발』(2010) 연구 중에서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재구성했음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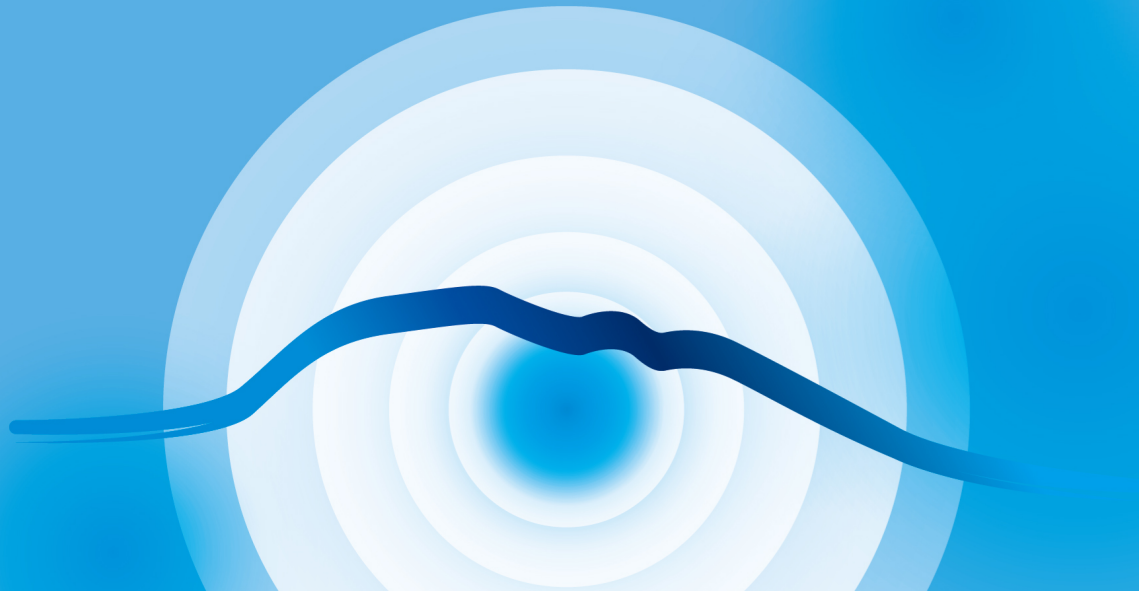
참고문헌

- 고성준 외(2010). 「청소년 대상 필요성 논리개발」. 통일부 학술용역 보고서.
- 김학준 외(2011). 「통일이후 통일을 생각한다」. 푸른역사.
- 박명림(2011).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한반도 포럼 창립학술 회의(2011.3.28) 발제문. 『중앙일보』 3.29일자.
- 서재진(2009).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포럼,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방향』, 강연자료, 4.30.
- 엄상윤(2010a). “청소년 대상 통일 필요성 설명논리 개발방향,” 통일교육원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4.22.
- \_\_\_\_\_(2010b). “통일 회의(懷疑)의식의 점증: 배경 분석과 해결방안”(정책브리핑).
- 이상우(2010). “통일교육의 어제, 오늘과 내일,” 제17기 통일교육위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출범기념 세미나,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의 방향』, 5월 13일.
- 최진욱(2010).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일연구원 주최.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10월 5일.
- 통일교육위원협의회(2010). 『바른 사회통일교육 길잡이』. 서울: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 통일부(2010). “8·15 경축사(통일분야) 참고자료,” 8월.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2010 통일교육지침서』.

## JPI 정책포럼 현황

- 이흥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2011년 2월)
- 염도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2010년 10월)
- 손기웅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2010년 9월)
- 이선진 『중국의 대미안마 전략』(2010년 9월)
- 최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2010년 9월)
- 전진호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2010년 8월)
- 정성장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2010년 8월)
- 최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2010년 8월)

- 김재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2010년 7월)
- 이성우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2010년 7월)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2010년 7월)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2010년 6월)
- 서상문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2010년 6월)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2010년 6월)
- 권태진 『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2010년 5월)
- 오경택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2010년 5월)
-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2010년 5월)
- 전성훈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함의』(2010년 4월)
- 김석수 『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2010년 4월)
- 유달승 『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2010년 4월)
- 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2010년 3월)
- 이영훈 『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2010년 3월)
- 이선진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2010년 3월)
- 문흥호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2010년 2월)
- 조성렬 『한반도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2010년 2월)
- 이종서 『EU의 대북정책의 특징: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2010년 1월)
- 박병광 『최근의 중국 군사력 발전 현황과 함의』(2010년 1월)
- 송화섭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2010년 1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6회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1. 5. 27 ~ 29**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평화재단 / 동아시아재단
-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외교통상부 / 국토해양부 /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국제교류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제주대학교 / PRIO / 코리아 DMZ협의회 /  
UN거버넌스센터 / 대한지질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